

報 道 資 料

題 目 :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발행 원활화 방안

主要内容

- ☐ 정부는 12.26일 경제장관간담회를 개최하여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발행 원활화 방안」을 마련하였음
 - 내년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65조원중 제 차환발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는 규모는 25조원 수준으로서, 이는 기존의 Primary CBO와 CLO를 통해 흡수될 수 있는 규모임
 - ☐ 다만, 일시에 대규모로 만기도래하여 기존 제도를 통해서 적기에 자금지원이 곤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회사채 신속인수방안을 마련
 - 만기도래규모중 20%는 해당기업이 자체상환
 - 나머지는 산업은행이 전액 우선 인수후 이중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rimary CBO 및 CLO에 편입하며, 20%는 채권은행이 인수하고,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
 - ☐ 사업성은 있으나 Primary CBO에 편입되기 어려운 중견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공동보증하는 방안 강구
- ※ 별첨 :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발행 원활화 방안」
(인터넷 Address : www.mofe.go.kr)

報道資料 生産課 : 金融政策局 金融政策課 TEL : 500-5341~3

財 政 經 濟 部 公 報 官 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발행 원활화 방안 (발표문)

2000. 12. 26

재 정 경 제 부
금융감독위원회

정부는 우리 경제의 혈맥과 같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금융시장의 자원분배기능이 원활해 질 수 있도록 2단계 기업·금융구조조정 마무리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구조조정과정에서 마찰적인 신용경색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자금시장 안정보완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외환위기 전후에 집중적으로 발행되어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회사채의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rimary-CBO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바 있으며 이를 소화해 줄 채권펀드를 조성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금년중 7.3조원 규모의 Primary-CBO가 발행되었으며 두차례에 걸쳐 20조원의 채권펀드가 조성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부터는 은행대출에 대해서도 기존 Primary-CBO제도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의 신용등급여신을 묶어 신용보증기관의 부분보증을 통해

신용을 보완한 후 이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은행
대출담보부증권(CLO) 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금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인식아래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내년중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약 65조원중
원활한 차환발행을 위해 신용보완이 필요한 회사채
규모는 약 25조원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만기도래분중 이미 중도상환되었거나 법정관리·화의·
워크아웃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와 A등급 우량 회사채의
경우에는 별도 보완대책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25조원 규모의 회사채는 정부가 이미
마련한 Primary-CBO와 CLO를 활용하면 충분히 대처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Primary-CBO 및 CLO제도가 회사채 발행규모가 많고 단기간 내에 만기가 집중됨에 따라 마찰적인 자금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일부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거액 만기도래 회사채의 원활한 소화를 위해 만기가 일시에 대규모로 집중되더라도 적어도 20%를 자체적으로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회사채의 신속인수방안」을 2001년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기업이 마찰적 자금수급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차환발행분을 일단 산업은행이 전액인수한 후 이중 70%는 추후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Primary-CBO와 CLO에 순차적으로 분할·편입하고, 20%는 해당기업의 채권은행들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보유규모와 대출금 등을 감안하여 재인수하여 신용위험을 분산토록하며, 나머지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토록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속인수방안이 원활히 시행되기 위해서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채권은행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주채권은행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신속인수방안 적용대상기업 선정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동 협의회에서 선정되는 기업이 편입된 Primary-CBO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채권펀드도 10조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추가조성해 나감으로써 채권수요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Primary CBO에 편입되기 어렵지만 사업성이 있는 중견대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은행(산업은행등)이 공동으로 보증하여 회사채가 원활히 차환발행 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채 신용보증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서울보증보험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한편 신용보

증기금과 산업은행의 재원확충을 위한 방안도 강구
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한
Primary-CBO와 CLO, 채권펀드,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을 삼두마차로 하여 당면한 신용경색을 풀어나가는
한편, 중앙은행의 유동성공급 기조를 신축적으로 유
지하고 은행의 기업대출도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증권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
력해 나갈 것입니다.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회사채 발행 원활화 방안

2000.12.26

재 정 경 제 부
금융감독위원회

1. 배 경

☐ 외환위기 직후에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가 2001년중 만기 도래 하면서 기업의 회사채 차환발행 부담이 커지고 있음

- 내년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약 65조원 수준으로 기상환분, 법정관리·화의·워크아웃기업, 시장발행이 가능한 A등급 회사채등을 제외한 별도대책이 필요한 규모는 25조원 수준

* 내년도 회사채 실질만기 만기도래 현황(조원)

	1/4	2/4	3/4	4/4	소계
총 만기도래(사모포함)	15.5	12.0	14.1	23.8	65.4
(중도상환 WO·화의 부도등)	5.1	3.2	4.7	4.6	17.6
(A등급 이상등)	4.7	4.5	4.9	8.7	22.8
실질만기도래	5.7	4.3	4.5	10.5	25.0

* 자료 : 금융감독원

☐ P-CBO, 채권형펀드 등으로 회사채 차환발행을 지원하고 있으나,

- 일시에 집중적으로 회사채 만기가 도래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제도만으로 적기에 차환발행을 지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회사채 발행규모가 많고 단기간내에 만기가 집중되어 있는 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2. 회사채의 신속인수 방안

가. 제도내용

□ 「회사채의 신속인수 방안」를 도입하여 회사채 차환발행을 적기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

-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흡수
- 만기도래분의 80%는 신속인수제도를 통해 차환발행 지원

① 우선 산업은행이 해당회사채를 전액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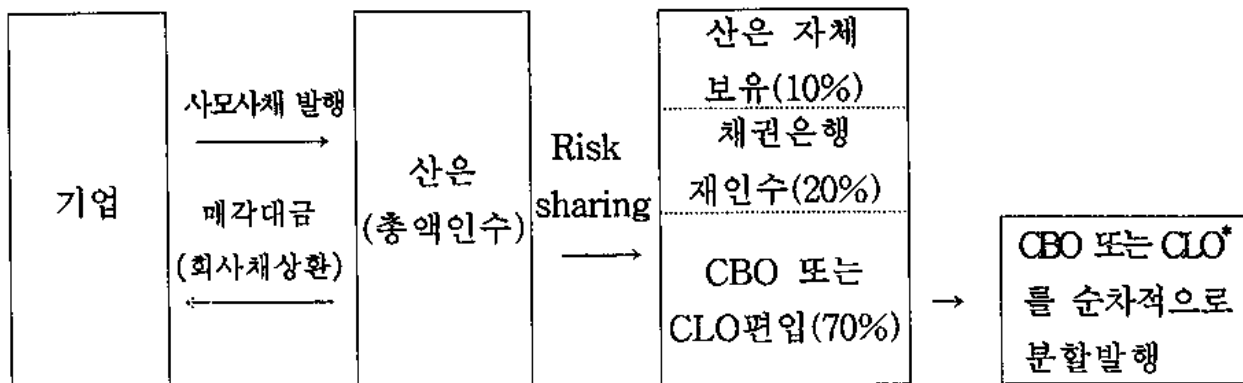
- 신속한 회사채 발행을 위해 사모사채 방식으로 발행

② 산은 인수분중 70%는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회사채담보부증권(CBO)과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에 순차적으로 분할·편입

③ 산은 인수분중 20%는 해당기업의 채권은행들이 만기도래 회사채 보유규모 및 대출금등을 감안하여 재인수*하고, 10%는 산업은행이 계속 보유

* 구체적인 방안은 조만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확정하되 산업은행은 재인수대상에서 제외

※ 산업은행을 통한 신속인수제도 구조



* 선순위 : 신보 보증, 후순위 : 발행기업 인수

☐ 대상기업

- 회생가능성이 있으나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를 감당할 수 없는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 기업
- 대상기업 선정방법 : 채권금융기관, 산업은행, 신보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원여부, 인수규모 등을 결정

☐ CBO(CLO) 시장소화 방안

- 신용보증기금의 충분한 보증지원
 - 선순위 CBO(CLO)의 충분한 보증을 통해 상품성을 제고하여 원활한 시장소화 도모
 - 신용위험이 없고 BIS비율 향상에 도움이 되는 상품이므로 일반투자자에게 판매
 - 채권형펀드 추가조성 검토
 - 필요시 10조원 단위로 순차적으로 추가조성하는 채권형펀드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 추진
 - 후순위 CBO(CLO)
 -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비율의 후순위 CBO(CLO)를 발행하여 인수*시킴
- * 만기도래분중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많을 경우 후순위채 규모를 작게함

☐ 시행시한 : 2001.1.1 ~ 2001.12.31

나. 보완조치 사항

☐ 산업은행의 원활한 회사채 인수 지원

- 동일기업 및 동일계열 여신한도 예외적용(금감위 승인)
- 한은 RP지원을 통해 회사채인수에 따른 유동성 지원(한은)
- 필요시 회사채 인수에 따른 추가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증자 추진(재정부)

☐ 신용보증기금의 원활한 보증 지원

- CBO관련 동일계열 및 동일기업 발행한도에 대해 예외인정(재정부)
- 충분한 보증지원이 가능하도록 추가재원을 조속히 마련(재정부)

☐ 채권금융기관의 원활한 인수 유도

- 재인수하는 회사채에 대한 세부 분배방안 확정(MOU 체결)

☐ 산업은행, 채권금융기관, 신보의 동 제도 취급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재정부, 금감원)

3. 중견대기업 회사채 공동보증

- ☐ Primary CBO에 편입되기 어렵지만 사업성이 있는 중견대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거래은행(산업은행등)이 공동보증하는 방안 강구